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2년 2월 22일(화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국제협력 담당관	담당자 • 아시아팀장 • 담당자	명창준 ☎440-3201 이다혜 ☎440-3205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 행정부시장,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차관 면담
- 몽골, 후식 밸리(Khushig Valley) 신도시 개발 관련 인천시 협력 당부 -

인천광역시는 22일 앵흐투부신 절버(Enkhtuvshin Zolboo)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차관이 인천을 방문해 안영규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인천의 도시개발 모델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경험 공유 및 몽골의 후식 밸리 신도시 개발 관련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2017년 5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인천 희망의 숲 조성, 농업협력사업 등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다.

안영규 부시장은 “코로나 팬데믹이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절버 차관의 인천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,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국가는 물론 인천시와 울란바토르시간 협력관계가 더욱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 고 전했다.

이어, 절버 차관은 “현재 몽골 정부는 해외 여타 도시들보다 성공적

이라고 평가받는 인천시 도시개발 사례를 모델로 해, 수도 울란바토르시 인근에 위치한 칭기즈칸 신공항 배후지에 후식 밸리(Khushig Valley)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.” 며 “신도시 개발 계획의 성공을 위한 인천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.” 고 말했다.

안 부시장은 신도시개발 관련 작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몽골 건설개발센터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평가하면서,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신도시개발 경험과 노하우 공유 등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.

한편 절버 차관을 비롯한 몽골 방문단은 오는 2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23일에는 인천도시공사 검단홍보관 시찰 후,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신도시개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5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